

〈제 713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온정 나눠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신입행원 등 30여명이 함께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결손가정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 최종합격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연수과정을 거치고 있는 광주은행 신입행원들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연탄을 배달하는 등 당기

순이익의 10% 이상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광주은행의 기업문화를 몸소 실천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 경기침체로 연탄 봉사활동과 후원 등이 줄어들어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의 나눔활동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운영중인 금호타이어의 대표 이웃사랑 캠페인으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인근의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를 통해 김장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김하수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AutoLand광주

◆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나눔



기아 AutoLand광주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여해 노사가 함께 김장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광주김치타운에서 실시된 김장봉사에는 박래석 기아 광주공장장과 김민기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광주사회복지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김장김치를 담갔다.

기아 관계자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김장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

◆ 소외 이웃에 '사랑의 김치' 나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이운영)가 최근 광주 남구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구제석근로사업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해양에너지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조성한 '만미기금'과 회사 '매칭 그랜트기금'을 통해 주변의 돌봄 이웃에게 직접 김치를 담가 전하는 사랑 나눔 행사로, 올해로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장김치는 남구의 각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은 "연말을 맞이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전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 완도 섬지역 독거노인에게 생수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13일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진행되고 있는 완도군 섬 지역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 생수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삼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후원하면서 마련됐으며, 생수는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달된다. 완도군의 추천을 받은 완도군 군외면, 노화읍, 고금면, 소안면, 보길면 등 섬마을 65세 이상 독거노인 약 1700명이 대상이다.

허정 지사회장은 "삼성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완도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후원해줘 감사하다"며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II. 광주경충 소식

〈제1583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유인경(작가/방송인) 주제: 행복과 성공의 열쇠, 관계를 말하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2월16일 광주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유인경 작가를 초청 <행복과 성공의 열쇠, 관계를 말하다>란 주제로 제158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주체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키워드로 'Accept', 'Be my self', 'Choice', 'Diamond', 'Empathy'를 제시했다. Accept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21세기에선 세대에 따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가치관 차이도 크고, 쓰는 언어도 다르다. 세대 갈등이 무척 심하다. 또한 지금은 감수성의 시대다. 관습법이 다 무너지고 젠더감수성이 정말 예민해졌다.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시대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Be my self '나를 알고 나다움을 보여주기'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 맞추다가 보면 자신의 정체성과 색깔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자기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보여줘야 한다. 진솔함, 자기만의 고유 색깔을 찾는 것, 그게 나 자신에게 평화로움을 준다.Choice '관계유지를 선택하기' 같이 갈 사람과 안 갈 사람, 배울 것과 안 배울 것들을 정하자는 의미다. 나를 기운 떨어뜨리는 사람, 내 시간 좀먹는 사람들, 내 마음 무거워지게 하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 두기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 철학과 사고를 끈임없이 선택적으로 배우고 끊고 해야 한다. Diamond '다양함과 연마하기' 연령대, 소득수준, 사회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잘 연마해 다이아몬드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르신들에겐 학식과 무관하게 경륜, 연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지식과는 달리 지혜는 밥그릇에 따라 갈린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들려주고, 나중에 힘이 떨어질 때 우릴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 친구들이다. Empathy '공감과 반응'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감 능력을 꼽으며,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평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도 '괜찮아?'라고 되물며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게 바로 회복탄력성 강화로 이어진다.



사무국 일지(12.12 ~ 12.16)

12.12 (월)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 간담회	12.15 (목)	●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생협력 평가 회의 ● 경제고용진흥원 ESG위원회
12.13 (화)	●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이사회		
12.14 (수)	● 한국은행 경제세미나 ● 북구청 일자리위원회 ● 제10차 자문위원 회의	12.16 (금)	● 제1583회 금요조찬포럼 ● 광주시 민생경제 워크숍 ● 노사민정협의회 토론회

2023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2022. 12.

< 조사개요 >

※ 「2023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는 한국경총 및 전국경총과 (주)글로벌리서치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0개사(응답 기업 기준)의 부서장 이상 직급(CEO, 임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임.

1

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내년 경영계획 기초,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 90.8%

□ 2023년 경영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4.2%는 2023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12.9%)했거나, '초안은 수립했다'(41.3%)고 답변(2023년 경영계획 수립 기업)

○ 응답 기업의 45.8%는 조사 기간 중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

< 기업 규모별 2023년 경영계획 수립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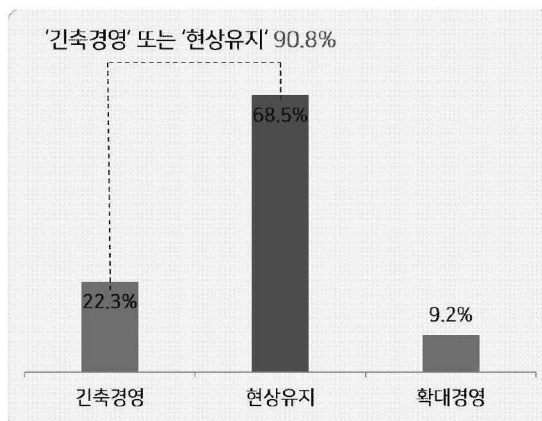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초안은 수립했다(최종안 확정 전)	41.3%	36.9%	43.6%
최종안을 확정했다	12.9%	19.0%	9.6%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	45.8%	44.0%	46.8%

□ 2023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주된 경영계획 기초를 조사한 결과,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이라는 응답이 90.8%로 나타남.

* 2023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거나 '초안은 수립'한 기업(응답 기업의 54.2%)

○ 반면 '확대경영'이라는 응답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 2023년 경영계획 기초 >



< 기업 규모별 내년 경영계획 기초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긴축경영	22.3%	12.8%	27.7%
현상유지	68.5%	76.6%	63.9%
확대경영	9.2%	10.6%	8.4%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경영계획 기초를 '확대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및 '핵심인재 확보'를, 경영계획 기초를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전사적 원가 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확대경영)** 내년 경영계획의 방향성을 '확대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구체적 시행계획은 '신사업 진출'(41.7%), '핵심인재 확보'(25.0%), '투자 확대'(16.7%) 등 순으로 조사

< 2023년 확대경영의 구체적 시행계획 >

구분	신사업 진출	핵심인재 확보	투자 확대	해외시장 개척	M&A	기타
응답률	41.7%	25.0%	16.7%	8.3%	8.3%	-

- **(긴축경영)** 내년 경영계획의 방향성을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구체적 시행계획은 '전사적 원가절감'(72.4%), '유동성 확보'(31.0%), '인력운용 합리화'(31.0%) 등 순으로 집계

⇒ 이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비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사적 원가절감을 통한 비용 감축을 긴축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으로 풀이됨.

< 2023년 긴축경영의 구체적 시행계획 >

구분	전사적 원가절감	유동성 확보	인력운용 합리화	신규투자 축소	사업부문 구조조정	생산규모 축소	자산 매각
응답률	72.4%	31.0%	31.0%	20.7%	13.8%	10.3%	-

주 :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2

2023년 투자·채용 계획은 「금년 수준」

- “투자 및 채용 확대” 응답은 각각 15.4%, 24.6%에 불과해

□ 2023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투자 및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금년(2022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거나 ‘초안은 수립’한 기업(응답 기업의 54.2%)

○ (투자계획) ‘금년 수준’(6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투자 축소’ 17.7%, ‘투자 확대’ 15.4% 순으로 집계

-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투자 축소’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21.7%)이 300인 이상 기업(10.6%)보다 11.1%p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별 2023년 투자 계획(금년 대비) >

구분	대폭축소	소폭축소	축소	금년 수준	소폭확대	대폭확대	확대
전체	2.3%	15.4%	17.7%	66.9%	14.6%	0.8%	15.4%
300인이상	2.1%	8.5%	10.6%	76.6%	12.8%	—	12.8%
300인미만	2.4%	19.3%	21.7%	61.4%	15.7%	1.2%	16.9%

○ (채용계획) ‘금년 수준’(6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용 확대’ 24.6%, ‘채용 축소’ 13.8% 순으로 집계

< 기업 규모별 2023년 채용 계획(금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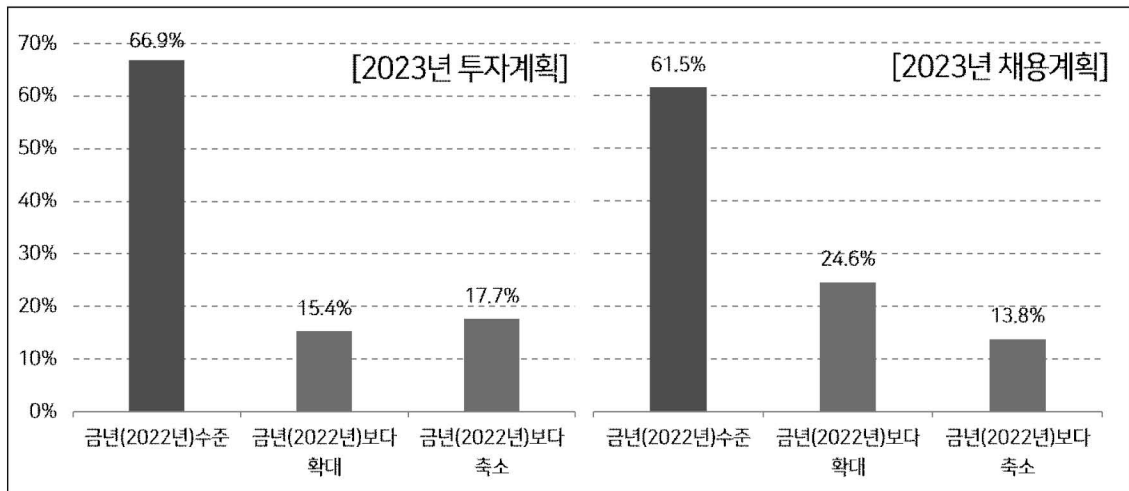
구분	대폭축소	소폭축소	축소	금년 수준	소폭확대	대폭확대	확대
전체	1.5%	12.3%	13.8%	61.5%	23.8%	0.8%	24.6%
300인이상	—	12.8%	12.8%	74.5%	12.8%	—	12.8%
300인미만	2.4%	12.0%	14.4%	54.2%	30.1%	1.2%	31.3%

Ⅲ. 노동경제동향

⇒ 내년 우리 경제가 1%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내년 투자 및 채용계획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역성장($\Delta 0.7\%$)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됨(국내외 주요기관 성장률 전망치 6p 참조).

< 2023년 투자 및 채용계획 >



3

우리 경제 정상궤도 회복 시점 「2024년 이후」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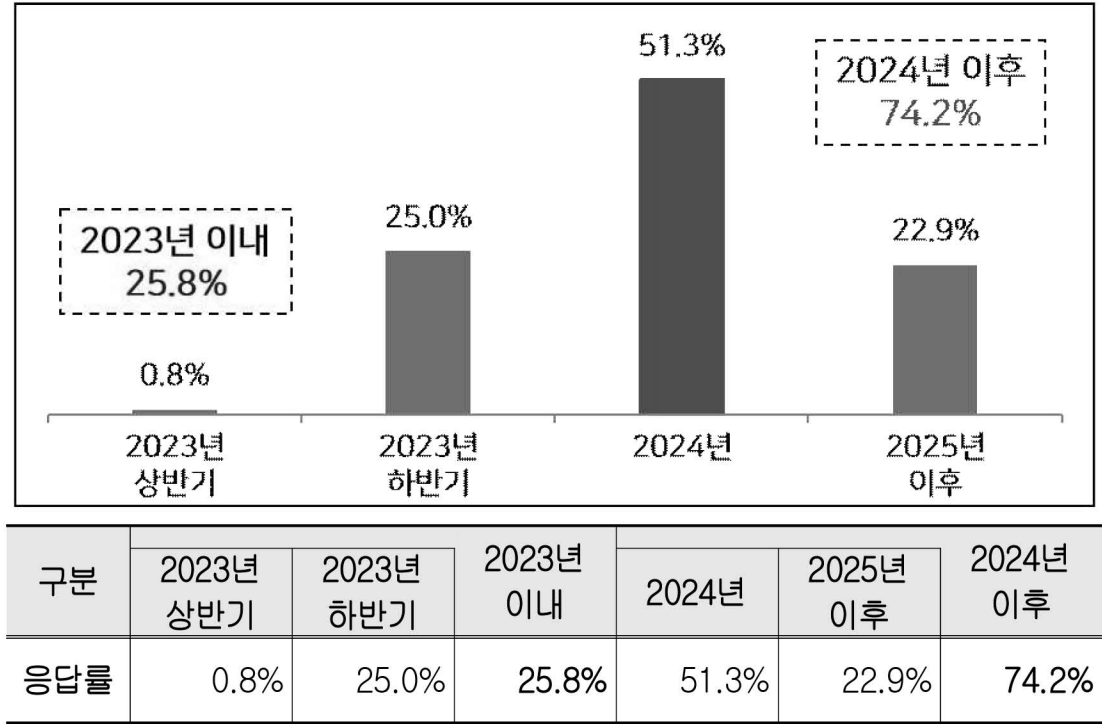
-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평균 1.6%로 전망

□ 응답 기업의 74.2%*는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을 ‘2024년 이후’라고 답변

* ‘2024년에 회복될 것’ 51.3% + ‘2025년 이후에 회복될 것’ 22.9%

- 우리 경제가 ‘2024년’에 정상궤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25.0%, ‘2025년 이후’ 22.9% 등의 순으로 집계. ‘2023년 상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

<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 >



□ 응답 기업들의 2023년 우리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전망치 평균은 1.6%*로 나타남.

*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 시 1.648%

Ⅲ. 노동경제동향

⇒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내년 경제 상황을 더 보수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으로 추정

< 참고 > 국내외 주요기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한국은행 (‘22.11.24)	KDI (‘22.11.10)	OECD (‘22.11.22)	IMF (‘22.10.11)	산업연구원 (‘22.11.22)
전망치	1.7%	1.8%	1.8%	2.0%	1.9%

주 : ()안은 전망시점

□ 응답 기업의 90.8%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

○ ‘1.5% 이상~2.0%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이상~1.5% 미만’ 14.2%, ‘2.0% 이상’ 9.2% 등의 순으로 집계. 다만, ‘2.0%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 중 내년 성장률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구간별) >

구분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응답률	0.4%	14.2%	76.3%	9.2%

4

기준금리(現 3.25%), “인하하거나 유지해야” 81.7%

- 기업 2곳 중 1곳(50.5%), “내년 자금사정 어려울 전망”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 기업의 81.7%는 ‘현재 수준(3.25%)보다 인하’하거나 ‘더 올리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 대출부담 증가, 자금경색 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3.25%)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말고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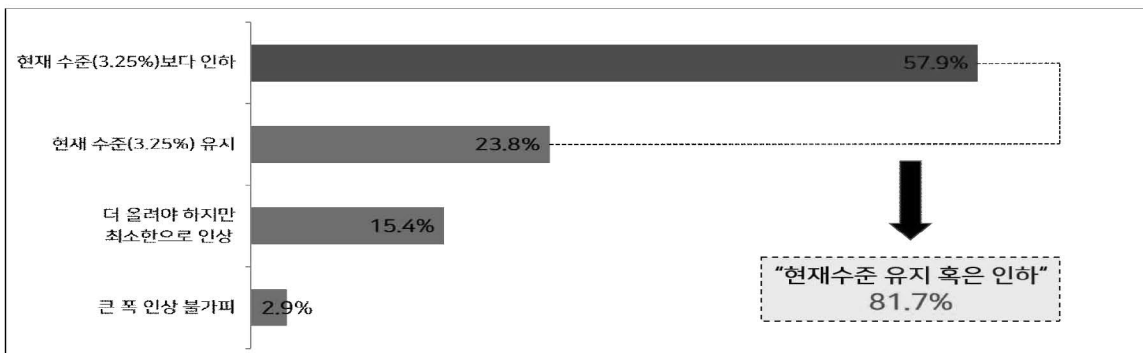
○ 반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더 올릴 필요는 있지만,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5.4%로 조사됐고, ‘물가 안정, 자금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음.

⇒ 이는 높아진 금리 부담과 함께 최근 기업 영업실적까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

* 코스피 상장사(695개社)의 2022년 3분기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지난 2분기에 비해 4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기업 규모별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현재 수준(3.25%)보다 인하	57.9%	69.0%	51.9%
현재 수준(3.25%) 유지	23.8%	11.9%	30.1%
더 올려야 하지만 최소한으로 인상	15.4%	16.7%	14.7%
기준금리 큰 폭 인상 불가피	2.9%	2.4%	3.2%



Ⅲ. 노동경제동향

□ 한편, 기업들의 자금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50.5%*가 '내년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답변

* '현재 괜찮지만, 내년 어려울 것' 24.2% + '현재 어렵고, 내년에도 어려울 것' 26.3%

○ 구체적으로, '현재 자금사정이 괜찮고, 내년에도 양호할 것'이라는 응답이 32.9%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고, 내년에도 어려울 것' 26.3%, '현재 자금사정이 괜찮지만, 내년에는 어려울 것' 24.2% 등의 순으로 집계

○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응답은 43.0% 나타났으며, '내년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50.5%로 나타나 내년에 기업들의 자금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

< 기업 규모별 최근 자금상황에 대한 인식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현재 괜찮고, 내년에도 양호할 전망	32.9%	35.7%	31.4%
현재 어렵지만, 내년에 양호할 전망	16.7%	25.0%	12.2%
현재 괜찮지만, 내년에 어려울 전망	24.2%	17.9%	27.6%
현재 어렵고,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	26.3%	21.4%	28.8%

5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로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기대효과, “투자 및 고용 확대” 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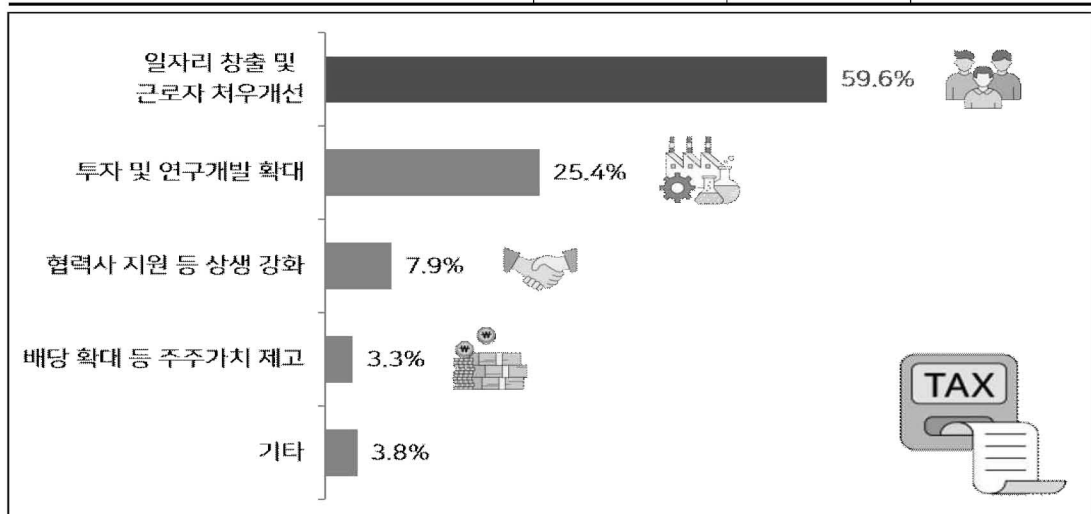
-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되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응답 기업의 85.0%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함.

* 동 항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現 25→22%),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과표 5억원까지 10%) 적용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한 것임.

-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25.4%, ‘협력사 지원 등 상생 강화’ 7.9% 등의 순으로 집계

< 기업 규모별 법인세 개편안 통과 시 기대효과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25.4%	26.2%	25.0%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개선	59.6%	57.1%	60.9%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3.3%	6.0%	1.9%
협력사 지원 등 상생 강화	7.9%	10.7%	6.4%
기타	3.8%	-	5.8%



주 : 기타 응답은 ‘영향 없음’,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름’ 등

6 現 주력사업 주요 수익원 가능 기간 「5년 이상」 80.0%

□ 응답 기업의 80.0%*는 회사의 現 주력사업이 향후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가능한 기간으로 '5년 이상'이라고 답변

* '5년 이상~7년 미만' 17.5% + '7년 이상~10년 미만' 22.5% + '10년 이상' 40.0%

○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에서 89.3%로 나타나, 300인 미만(75.0%)보다 14.3%p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별 現 주력사업의 향후 수익원으로 가능할 기간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미만	0.4%	-	0.6%
1년 이상~3년 미만	3.8%	1.2%	5.1%
3년 이상~5년 미만	15.8%	9.5%	19.2%
5년 미만	20.0%	10.7%	24.9%
5년 이상	80.0%	89.3%	75.0%
5년 이상~7년 미만	17.5%	17.9%	17.3%
7년 이상~10년 미만	22.5%	20.2%	23.7%
10년 이상	40.0%	51.2%	34.0%

□ 한편,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20.0%)을 대상으로 現 주력사업을 대체할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묻은 결과, '대체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응답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음(43.8%)', '대체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내부 검토중(25.0%)' 등 현재 대체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8%로 집계

< 기업 규모별 대체사업 진행 여부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대체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중	16.7%	11.1%	17.9%
대체사업이 결정됐으나, 미진행	14.6%	22.2%	12.8%
대체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중	25.0%	22.2%	25.6%
대체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음	43.8%	44.4%	43.6%

주 : 現 주력사업의 향후 수익원으로 가능할 기간을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7 응답 기업의 62.9%, 2023년 영업실적 「올해(2022년)와 유사」

□ 2023년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등)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9%가 '올해(2022년)와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

○ 이 외 '올해(2022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4%, '올해(2022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6.7%로 집계됨.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영업실적이 '올해(2022년)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0인 이상 기업 : 69.0%, 300인 미만 기업 59.6%

< 기업 규모별 내년 영업실적 전망(올해 대비) >

구분				올해 수준			
	대폭개선	소폭개선	개선		소폭악화	대폭악화	악화
전체	2.5%	14.2%	16.7%	62.9%	17.5%	2.9%	20.4%
300인이상	1.2%	16.7%	17.9%	69.0%	13.1%	-	13.1%
300인미만	3.2%	12.8%	16.0%	59.6%	19.9%	4.5%	24.4%